

황선홍호 泰 더위가 최고의 '적'

내일 방콕서 월드컵 예선 4차전 원정경기 무더위에 습도↑... "상대 역습 보완해야"

황선홍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더위 극복을 태국전 승리의 선결 과제로 꼽았다.

대표팀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이른 저녁 태국 사뭇쁘라칸의 윈드밀 풋볼클럽 훈련장에서 태국 입성 후 첫 훈련을 소화했다. 오후 6시30분쯤인데도 기온은 섭씨 30도나 됐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훈련하기가 더 힘들었을 터다.

황 감독은 훈련 전 기자들과 만나 "첫 경기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주 중요한 일전을 남겨놓고 있다"면서 "날씨가 좀 더운 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현지 적응을 잘해서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동남아 축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태국은 재벌이나 정치 명문의 아낌 없는 투자를 받는 부리람 유나이티드·빠툼 유나이티드 등 '빅 클럽'을 필두로 경기력 뿐 아니라 축구 환경 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뤘다.

태국에서의 전지훈련이나 태국 리그를

경험해 본 선수나 지도자들은 "몇몇 시설은 외려 한국보다 태국이 낫다"고 말하곤 한다. 황 감독은 "연습 구장도 그렇고, 경기가 열리는 구장도 점검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더운 날씨만 적응이 된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치르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4차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다. 황 감독의 지휘 아래 대표팀이 처음 치른 경기였던 태국과 홈 3차전에서 한국은 아쉬운 경기력으로 1-1 무승부에 그쳤다.

지난달 끝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졸전 끝에 4강 탈락하고 이후 각종 사건과 추문에 휩싸이며 팬들을 실망케 한 태국전사들은 이번 만큼은 태국에 시원한 승리를 거둬 팀 분위기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할 판이다.

황 감독도 승리가 절실하다. 그의 본업은 2024 파리 올림픽 도전에 나서야 하는 U-23 대표팀 감독이다. 워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면서 공석이 된 A대표팀



황선홍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23일 태국 방콕 윈드밀 풋볼클럽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훈련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 감독까지 맡겠다고 손을 들었다. '두 마리 토끼' 중 하나라도 놓치면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 텐데 지난 태국과 3차전 무승부로부터 스태프부터 꼬여버렸다.

태국과 홈경기 전 중앙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는 "머리 박고 하겠다"고 말했는데, 황 감독은 선수단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선수뿐 아니라 나를 포함해 코치 지원 스태프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다 극복해내려면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3차전에서 태국의 총총한 수비

와 빠른 역습에 힘겨워했다. 황 감독은 "상대의 역습에 대한 대응을 보완해야 한다.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다 보완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대의 장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태국전사들은 1시간여 정도 훈련했다. 손흥민(토트넘), 김민재, 이재성(마인츠), 주민규(울산) 등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뛰었거나 60분 이상을 소화한 선수들은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뛰며 회복훈련을 했다. 후반 교체 투입됐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나머지 선수들은 정상 훈련을 소화했다.

황선홍호는 한국시간으로 26일 오후 9시 30분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태국과 맞붙는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 태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은 뒤 손가락을 입쪽으로 가져가며 세리머니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은 거인' 신지애... LPGA 투어서 '부활의 봄' 오나

3라운드 버디 8개 '공동선두' 우승 땀 파리로 출전 청신호



신지애가 24일(한국시간) LPGA 투어 퍼 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 웃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리 키즈' 신지애(36)가 자신의 이상인 박세리의 이름을 내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 기회를 잡았다.

초청선수로 출전한 신지애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팔로스 베르디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PGA투어 퍼 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약 26억 원)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몰아쳤다.

8타를 줄인 신지애는 중간 합계 9언더파 204타를 기록, LA 출신인 미국 교포 엘리슨 리와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이날 막판까지 단독선두를 달리던 다렌딩 챔피언인 인휘닝(중국)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트리플 보기를 범하면서 세계랭킹 2위인 넬리 코르다(미국) 등과 공동 3위(7언더파 206타)로 내려갔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주로 활동하는 신지애는 7월 열리는 파리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높일 절호의 기회도 잡았다. 올림픽 여자골프에서는 올림픽 랭킹을 기준으로 한 나라당 출전권이 2장씩 주어지며, 세계랭킹 15위 이내 선수들은 단일 국적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현재 세계 18위인 신지애는 고진영(6위), 김효주(9위), 양희영(14위)에 이어 네 번째다. 신지애가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려면 6월 말까지 세계랭킹을 15위 이내로 끌어올려야 한다.

신지애는 "(올림픽 출전은) 이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고 박세리에게 말한 이유"라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일본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대회를 뛰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달 29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투어 HSBC위민스 월드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에도 출전, 공동 41위(3오버파 291타)에 머물렀다.

신지애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0승, LPGA 투어에서도 11승을 기록하는 등 프로 통산 64승을 올린 베테랑이다. 신지애는 2011년 2월 ISPS 한다위민스 호주 오픈 우승 이후 13년여 만에 LPGA투어 정상에 오른다.

이날 신지애는 3번홀부터 7번홀까지 5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등 절정의 경기 감각을 보여줬다. 100%의 페어웨이 적중율을 보여줬고, 83.33%의 그린 적중율을 기록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복귀전 패배 류현진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

'돌아온 몬스터' 류현진(한화 이글스)이 패배로 끝난 KBO리그 복귀전을 아쉬움 속에 복기했다.

류현진은 2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직구는 초반에 괜찮았는데 마지막 이닝에 가운데로 몰렸고 변화구는 제구가 아쉬웠다"면서 "한 시즌의 첫 경기였기 때문에 시범경기와는 느낌이 달랐고 기와는 느낌이 달랐고 있었다. 긴장했던 것 같다"고 속이 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예방주사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 선발투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날 LG 트윈스와 치른 2024시즌 개막

전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제구 난조를 보이며 3과3분의2이닝 6피안타 3볼넷 5실점(2자책점) 했다. 총 86개의 공을 던진 가운데 직구(45개), 커브(18개), 체인지업(14개), 컷패스트볼(9개)을 섞어 던졌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0km를 찍었다.

류현진은 "투수는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제구가 중요하단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느꼈다. 구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구속이 시 돌아왔다."

속 140km대 초반이 나와도 제구가 되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거 같다"고 했다.

역대 개막전 성적이 좋지 못했던 이력에 대해선 "그건 잘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위안 삼아야 할 정도다"라면서 머쓱하게 웃어 보였다.



BEYOND GOLF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